

“취준생 주목!”

# LG·현대차·코레일 등 대기업·공기업 공채 스타트

## 기아차·현대카드 인턴도 선발 한국철도공사, 서류전형 생략

현대자동차와 IBK기업은행, LG그룹 등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기아자동차, 현대카드 등은 상반기 공채시즌에 맞춰 인턴사원을 선발한다.

6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IBK기업은행, LG전자, 한국철도공사 등이 3월 둘째 주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했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R

&D(기술경영 및 재료 등), Manufacturing(구매/부품개발, 플랜트), 전략지원(상품전략, 마케팅 등), S/W(S/W) 각 부문이다. 지원요건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당사 기준 영어성적 보유자(2016년 3월 13일~2018년 3월 12일 내 취득 성적), 학교를 졸업했거나 2018년 8월 졸업예정으로 2018년 7월에 입사 가능하다. 3월 12일 12시까지 현대자동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에서 2018년 상반기 신입행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일반(금융영업), 디지털 부문 신입행원이며 학력, 전공 및 연령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

이다. 기타 자격요건은 2018년 6월 신입행원 연수 참가 후 2018년 7월 입학이 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역량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된다. 서류전형은 3월 16일 17시까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금번 채용에서 일반(금융영업) 직군 125명, 디지털 직군 45명을 합해 총 170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LG전자는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섰다. 모집분야는 H&A사업본

부, HE사업본부, MC사업본부, VC사업본부, B2B사업본부, CTO본부, 한국영업본부 등 본부 별 각 분야 신입사원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후 인적성검사, 1차 면접, 건강검진, 2차면접, 최종전형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최종 선발된다. LG전자 채용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및 입사지원은 3월 23일 16시까지 LG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국철도공사는 3월 5일~7일까지 총 3일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부문 신입사원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 서류전형을 진행하지 않

는 점이 눈에 띈다. 채용공고 입사지원 후 서류검증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는 모두 필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면접 시험/인성역량검사, 철도적성검사/신체검사, 신입사원 교육(고졸공채 전형의 경우 인턴사원 근무로 대체)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된다. 입사지원은 3월 7일 14시까지 한국철도공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채용에서 일반공채(680명)와 고졸공채(320명)를 합해 총 10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온라인 채용토크쇼 'JOB4U'.

/CJ그룹

## CJ그룹 신입 1000명 채용... 블라인드 확대

CJ제일제당 등 13개 계열사서 공채 인턴 사원·해외 학부생 전형도 진행

CJ그룹이 CJ제일제당, CJ E&M을 비롯한 13개 주요 계열사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서류 접수는 3월 7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입사원 전형'의 지원 자격은 2018년 8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다.

CJ그룹은 일반 신입사원 전형 외에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리스펙트(Respect) 전형' 및 어학 등 글로벌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글로벌인재 전형',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역(예정) 장교 전형'을 분리해 모집한다.

또한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사원 전형'과 해외 대학교 기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위한 '해외 학부생 인턴 전형'도 동시에 뽑는다. 지원자들은 총 6개의 전형 중 자격에 맞는 전형을 선택해 접수해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CJ그룹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도를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는 '리스펙트(Respect) 전형'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E&M 공연사업, CGV 마케팅, CJ오쇼핑 방송기술 등 다양한 직무로 대폭 늘렸다. '리스펙트 전형'은 출신 학교 및 학점, 영어 점수 등 일명 '스펙'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CJ그룹은 올해 상반기 공채를 통해 약 1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2019 대입 수시 6개월 앞으로... “대학별 신설 전형 노려라”

# 소프트웨어인재... 학교장추천... 茶山인재

광운대·숙명여대·서울과기대

인하대·중앙대

아주대

신설전형, 전년도 합격자료 없어  
대학별 모집 요강 꼼꼼히 살펴야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별 신설 전형과 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설 전형은 대학의 인재 선발 목표의 변화 등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6일 진학사가 각 대학별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하대와 중앙대는 학교장추천 전형을,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논술전형을 신설했다.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숙명여대는 소프트웨어인재 전형을 신설했다.

광운대·서울과기대·숙명여대가 신설한 소프트웨어인재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치러진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고,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로만 선발한다.

정부가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논술전형을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2019학년도에 대입 수시모집에서 신설하기로 했다. 성신여대는 논술 70%, 학생부 30%를 반영해 311명을 선발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논술 60%, 학생부 40%로 241명을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뽑는다. 두 대학

의 논술전형 신설에 따라 올해 논술전형 실시대학은 모두 33개 대학이 됐다.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방법
광운대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30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70%+면접30%
서울과기대	학생부교과 소프트웨어인재	407	학생부교과100%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311	논술70%+학생부30%
숙명여대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15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40%+면접60%
아주대	다산인재	291	서류100%
인하대	학교장추천	286	서류100%학교당 5명 추천
중앙대	학교장추천	150	교과60%+서류40%
한국기술교육대	코리아텍일반	241	논술60%+학생부40%

/자료=진학사

아주대는 학생부종합전형 다산(茶山)인재전형을 신설했다. 이 전형은 전년도 자기추천전형(과학우수인재+글로벌우수인재)을 확대한 것으로 융복합사고역량, 실천적정의역량, 의사소통역량, 글로벌역량, 소프트웨어역량 등 핵심역량을 지원자격으로 제시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이 학생부와 자소서 등 서류 100%로 선발하므로 수능과 비교해 학교 평가에서 우위가 있는 수험생이 지원하면 유리하다.

인하대는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으로 286명을 선발한다. 전년도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이 사라지고, 새롭게 생긴 전형이다. 전형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서류 100%로 선발하지만, 지원 자격이 부여돼 고교별 5명 이내 추천 받은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중앙대는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전형을 신설해 경영학부, 전자전기공학부 등 12개 모집단위에서 150명을 선발한다. 경희대 등에서 선발하는 고교연계전형과 유사한 성격의 전형으로 교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수능최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의 교과 성적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대학이 신설한 전형의 경우 전년도 합격자 자료가 없어,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7일  
음력: 1월 20일

수도권 날씨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56 | 해질 / 18:31

연천 -3/8, 동두천 -2/10, 가평 -3/8, 파주 -3/8, 서울 1/9, 양평 -2/9, 용인 1/9, 수원 1/9, 평택 0/9, 백령도 -1/4, 인천 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입시 공정성 높인 대학에 560억” 65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학교 교육만으로 입시에 도전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블라인드면접 등 대입의 공정성을 높인 대학 위주로 지원 대학을 선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에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65개 대학 내외를 선정하고 총 559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대학별 연

간 평균 8억6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개선하는 대학’(유형 I) 약 60곳과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 II) 약 5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대학 선정에는 대학별 올해 대입전형 개선 계획과 2019~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고른기회 전형 운영 현황 등이 평가된다.

/한용수 기자